

제9회

우수리포트 공모대회 우수상 수상작

## 의미, 공동체, 규칙 준수

이우람

(인문대학 철학과)

\* 이 글은 2008년 2학기 '언어철학' (담당교수: 강진호) 강좌의 리포트이다.



# 차 례

1. 서론
  2. 회의적 역설
  3. 회의적 해결책
  4. 회의적 해결책의 본성
  5. 회의적 해결책의 내적 정합성
  6. 회의적 해결책과 공동체
  7. 고립적 규칙 준수의 불가능성
  8. 결론
- \* 참고문헌

## 1. 서론

크립키(S. Kripke)는 그의 저작 『비트겐슈타인의 규칙과 사적 언어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sup>1)</sup>에서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후기 저작, 특히 『철학적 탐구 *Philosophical Investigations*』<sup>2)</sup>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의미에 대한 회의적 역설(Sceptical Paradox)을 제기한다. 이 역설의 극단적인 결론은, 어떠한 형태의 의미귀속문장(즉, ‘화자 X가 표현 E를 통해 M을 의미한다’는 형식의 문장)도 진리조건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미귀속문장의 참·거짓에 관한 어떤 사실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크립키는 한편으로 이 역설의 결론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는 다른 한편,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회의적 역설에 대한 “회의적 해결책”(Skeptical Solution)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 회의적 해결책에 따르면, 의미에 대한 규칙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언어 공동체이며, 따라서 공동체와 고립된 개인의 규칙 준수는 가능하지 않다.

크립키의 논변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일단 그가 해석하는 비트겐슈타인이 실제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지가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크립키가 비트겐슈타인의 입을 빌어 제기한 역설과 역설에 대한 해결책은, 그것이 원래 비트겐슈타인의 사상과 닮아 있는 그렇지 않든, 그 자체로 철학적인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이 글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대체로 “크립키의 비트겐슈타인”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KW”라고 표기할 것이다.

나는 우선 회의적 역설과 회의적 해결책의 윤곽을 간략히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회의적 해결책의 타당성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회의적 해결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노선을 취한다. (i) “회의적 해결책이 고립 언어의 불가능성을 확립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ii) “회의적 해결책은 내적으로 비정합적이다.”<sup>3)</sup> 나는 이 글에서, (i)이 KW가 상징하는 언어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

---

1) Kripke, S.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이하 ‘WRPL’)

2)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 G. E. M. Anscombe, Oxford: Basil Blackwell, 1978. (이하 ‘PI’)

3) Miller, A. *Philosophy of Language*,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7, p. 178.

때문에 나온 비판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ii) 역시, KW의 회의적 해결책이 어떤 의미에서 “회의적” 해결책인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겨난 비판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KW의 회의적 해결책이 내적으로 정합적이며, 언어공동체가 의미에 대한 규칙 준수가 가능 조건임을,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개인의 규칙 준수는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할 것이다. 물론 이 글의 주된 목적은 KW의 견해를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의 논변을 명료하게 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의 논변이 성공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 2. 회의적 역설

“이것이 우리의 역설이었다. 어떠한 행위의 경로도 규칙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모든 행위의 경로는 규칙에 일치하게끔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4)</sup> 회의적 역설은 이 구절에서 출발하여 다시 이 구절로 돌아온다. ‘68+57=?’이 내가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계산 문제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내가 잠시 계산을 해본 뒤 ‘125’라고 대답한다고 하자. 이때 KW의 회의주의자는 나에게 의문을 제기한다. 내가 ‘125’가 아닌 ‘5’라고 대답해야 했다는 것이다. 어리둥절해 하는 나에게, 그는 내가 ‘+’라는 기호를 통해 ‘더하기’(plus)가 아닌 ‘커하기’(quus)<sup>5)</sup>라는 함수를 의미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가정에 의해, 나는 ‘68’과 ‘57’이라는 수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과거에 ‘68+57=?’이라는 문제에 대해 ‘125’라고 답해야 한다고 내 자신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내가 커하기가 아닌 더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결정할 사실이 있는가? <커하기 가설>은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나는 곧 반박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내 반박이 성공적이려면 두 가지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나는 “내가 더하기를 의미했음을 구성하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내가 ‘68+57’에 ‘125’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sup>6)</sup>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회의주의자는 당장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현

4) *PI*, § 201.

5) 이 함수의 정의(定義):  $x \oplus y = x+y$ , if  $x, y < 57$ ;  $=5$ , otherwise.

6) *WRPL*, p. 11.

재의 의미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회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의 현재의 의미를 결정할 어떤 과거의 사실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의미도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 예컨대, 내가 방금 전 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내가 앞으로 써 내려갈 문장들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나는 이 두 가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후보자들을 검토한다. 회의주의자는 과거의 내 마음 속에 있던 어떤 내용도, 내 외적 행동의 총체도, 내가 더하기가 아닌 커하기를 의미했다는 가설과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상식적인 반론은 다음과 같다. 나는 과거에 개별적인 더하기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더하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규칙, 예컨대, 'x+y'에 대해, 'x'가 지시하는 수만큼의 조약돌과 'y'가 지시하는 수만큼의 조약돌을 함께 세어 최종 개수를 답으로 제시하면 된다는 규칙을 습득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회의주의자는 여전히 내가 '5'라고 대답해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내가 '세다'(count)라는 기호를 유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 아니라 '세다'를 비표준적으로, 즉 '케다'(quount)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다'를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정당화는 어딘가에서 끝나야만 한다."<sup>7)</sup>

다른 후보자를 살펴보자. 나는 내가 과거에 실제로 수행한 계산이 아니라 나의 성향(disposition)에 호소할 수 있다. 즉, 실제로 내가 과거에 '68+57=?'이라는 물음을 접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물음을 접했다면, '125'라고 대답할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주의자는 두 가지 이유로 나의 반박을 일축한다. ① 회의주의자는 내 대답의 정당화 근거를 요구했다. 성향은 이 정당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성향은 오직 내가 대답할(would) 바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화의 맥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should)이다. 다시 말해, 의미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이는 다시, 한 표현의 올바른 적용과 그릇된 적용이 구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향을 통한 의미의 설명은, 이 구별을 설명하지 못한다. ② 나의 성향의 총체 역시 유한하다. 유한한 나의 성향이 어떻게 무한한 계산을 해낼 수 있는가? 나는 계산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

7) WRPL, p. 17.

나는 다시 성향에 어떤 조건절(*ceteris paribus*)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볼 수 있다. ①에 나타난 규범성 요구에 대해, 나는 이상적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 즉 올바른 적용과 그릇된 적용을 구별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또한, ②에 나타난 무한성 요구에 대해, 내가 충분히 오래 살 수 있다면, 즉 이상적 조건이 만족된다면,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주의자는 이 반론 역시 기각한다. 우선, 도대체 이 이상적 조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기 어렵다. 또한, “실수하는 성향은 내가 의미했던 함수와 일치하지 않는 답을 내놓을 성향이다.”<sup>8)</sup> 그러나 바로 ‘내가 의미했던 함수’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이상적 조건의 도입을 통한 해결책은 명백히 순환적이다.

나는 이제, ‘+’의 의미가 일종의 감각질(*qualia*)과 같은 것, 즉, 내성(*introspection*)에 의해 관찰 가능한, 환원 불가능한 경험이나, 심상(*mental image*)을 가리킨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회의주의자가 보기에 이들이 어떤 대답을 결정해주는지는 아직도 모호하다. 나는 감각질이나 심상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심상 역시 하나의 기호일 뿐이며, 따라서 무한한 해석을 요구한다. 심상 역시 첫째 후보자처럼 “규칙을 해석하는 규칙”<sup>9)</sup>을 다시 요구하게 되므로, 마찬가지로 기각된다.

마지막 후보자로, 나는 감각질과도 다른 매우 특별한(*sui generis*) 정신 상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회의주의자에게는 이 반론 또한 통하지 않는다. ‘+’로 덧셈을 의미하는 상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그리고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이러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설혹 그것이 존재하고 인식될 수 있다고 한들, 어떤 유한한 과거의 상태가 무한한 덧셈 문제에 결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로써 회의는 성공한다. 어떠한 후보자도 회의주의자가 제시한 두 가지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이 회의가 단순히 인식론적 회의에 그치지 않고, 존재론적 회의주의를 함축한다는 점이다. 즉, 회의주의자는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의미에 관한 사실을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 행동이나 정신 상태에 대한 가능한 모든

8) *WRPL*, p. 30.

9) *WRPL*, p. 43.

사실이 동원되어도 내가 '+'로 더하기를 의미했는지, 커하기를 의미했는지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3. 회의적 해결책

그러나 KW가 보기에 이러한 회의적 역설의 결론은 “정신 나간” 그리고 “참을 수 없는”<sup>10)</sup> 것이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가능한 두 가지 해결책, 즉 “직접적 해결책”(straight solution)과 “회의적 해결책”(sceptical solution)을 구별하고 자신의 해결책은 후자임을 밝힌다. 의미 회의주의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이 의미에 관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함을 논증함으로써 회의주의자를 논박하는 것인 반면, 회의적 해결책은 회의적 역설의 결론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한다. 다만, “우리의 일상적 실천이나 믿음은 [여전히] 정당하다. 왜냐하면...그것은 회의주의자가 옹호할 수 없다고 보였던 정당화를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sup>11)</sup>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화하는 의미귀속문장은, 진리조건을 지니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어떤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의미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KW는 여기서 진리조건에 대한 우리의 물음을 다음의 두 가지 물음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 ① “어떤 조건 아래서 이러한 형태의 단어들이, 적절하게 주장될 수 있는가(또는 부인될 수 있는가)?” ② “이러한 조건 아래서 이 형태의 단어를 주장하는(또는 부인하는)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유용성을 지니는가?”<sup>12)</sup>

비트겐슈타인의 전기(前期) 철학인 『논리-철학 논고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이하 『논고』)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직설법 문장이나 주장이 특별한 우선권을 지니지 않는다. 즉, 언어의 기능은 사실을 기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삶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장에 대응하는 사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문장들이 실제로 발화되고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건들을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미귀속문장이 주장가능한가? 한 문장의 주

---

10) *WRPL*, p. 60.

11) *WRPL*, p. 66.

12) *WRPL*, p. 73.



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언어공동체이다. 공동체가 특정 개인의 발화에 대해 주장 가능성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가 공동체의 대답과 일치하는 답을 충분한 횟수로 내놓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그의 발화는 주장가능하다. 예컨대, 한 학생이 ‘+’라는 기호로 더하기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는 공동체의 시험을 통해 판정된다. 오직 그가 여러 번에 걸쳐 공동체의 답과 일치하는 답을 내놓았을 경우에만 그는 더하기를 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다. 즉, “언어의 정상적인 화자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다.”<sup>13)</sup>

의미귀속문장은 어떤 유용성을 지니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무수한, 그리고 다양한 거래들과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 준다. 같은 기호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온전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없다. ‘+’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상거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언어공동체는 공동체에 맞지 않게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들을 실질적으로 제재 또는 배제할 것이다. 즉, 의미 귀속에 대한 공동체의 관행으로부터 이탈하는 개인들을 공동체로부터 배제하고, 그들이 올바른 규칙 준수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언어에 대한 KW의 새로운 물음에서 공동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개인에게는 의미에 대한 규칙 준수가 불가능하다. 고립된 개인에게는 그가 대답하고자 하는 경향성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 곧 그가 해야 할 대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의적 역설에서 보았듯, 그가 ‘68+57=?’에 대해 ‘5’라고 대답하든, ‘125’라고 대답하든, 오직 그 개인만이 고려될 경우, 그가 해야 할 답을 결정해 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고립된 개인은 틀릴 수가 없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지적대로, “규칙을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규칙을 ‘사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sup>14)</sup>

---

13) *WRPL*, p. 92.

14) *PI*, §202. 엄밀히 말해, §243 이하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언급하는 사적 언어(private language)는 오직 나 혼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적인 대상에 관한 언어이다. 크립키가 말하는 사적 언어는 고립된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이지만, 반드시 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크립키가 사적 언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고립 언어(solitary language)라고 말할 수 있다. KW에 따르면, 고립 언어가 사적 언어보다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고립 언어의 불가능성은 한층 유력한 이유로, 사적 언어의 불가능성을 낳을 것이다.” Goldfarb, W. “Kripke

#### 4. 회의적 해결책의 본성

KW의 회의적 해결책은 일단 회의적 결론, 즉 의미귀속문장에 관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의미귀속문장은 진리조건을 지니지 않는다는 역설의 결론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한다. KW의 입장은 의미 이론뿐만 아니라 철학의 다양한 다른 분야에 직접적인 함축을 지닐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메타윤리학적 입장과의 비교를 통해 회의적 해결책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sup>15)</sup> 일단 도덕적 사실의 존재를 긍정하는 도덕실재론이나, 도덕적 믿음의 가능성을 긍정하는 인지주의(cognitivism)에 대립하는 입장으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후보자를 고려할 수 있다.

- (1) 에이어(A. J. Ayer)의 이모티비즘: 도덕 판단은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의미하며, 따라서 진리조건을 지니지 않는다. 다만 도덕 판단은 이론적 의미 대신 화자의 태도를 표출하거나 타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정서적 의미를 지닌다.
- (2) 맥키(J. L. Mackie)의 반실재론: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는 도덕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기이하다. 가치는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투영(project)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 판단은 진리조건을 지니지는 하지만, 모두 거짓이다. 우리의 도덕적 논의는 모두 오류이다.
- (3) 블랙번(S. Blackburn)의 준실재론: 도덕적 가치는 우리가 투영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준실재론은 “여기에 어떠한 오류도 존재하지 않음을, 즉, 반실재론의 기반에서 투영된 술어들에게도 어떠한 부적절한 것이나, ‘병적인’ 것이 없음을 보이려는 기획”<sup>16)</sup>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재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도덕적 사실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도덕 판단이 마치 진리조건을 지니는 것처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투영주의적 기반을 통해 정당화된다.

---

on Wittgenstein on Rules”, in Miller, A. & Wright, C. (ed.) *Rule-Following and Meaning*,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2, p. 100.

15) 실제로 많은 논자들이 KW의 의미론적 반실재론이 특정한 메타윤리학적 입장과 비교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맥킨(C. McGinn)은 KW의 입장이 윤리학적 이모티비즘(ethical emotivism)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McGinn, C. *Wittgenstein on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1984, p. 65.

16) Blackburn, S. *Spreading the Word*, Oxford: Clarendon Press, 1984, p. 171.

나는 KW의 회의적 해결책이 (3)과 유사한 것이라고 본다. 일단 (2)는 문제되는 논의 영역 D의 문장들이 진리조건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므로, KW의 해결책과 다르다. (1)은 진리조건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D의 문장들이 다른 영역의 문장들과는 다른,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KW의 해결책에 가깝기는 하지만, D의 모든 문장들에 대한 진리조건 부여를 정당하지 않은,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KW의 입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3)은 D의 문장들이 진리조건을 지니지 않지만 다른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 D의 문장들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KW의 해결책과 유사하다. KW는 의미론적 논의 영역의 모든 문장들의 발화가 여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재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미에 관한 사실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것이 다른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KW가 수학적 유한론자(finitist)와 심리학적 행동주의자를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두 부류 모두 “무한한 수학적 대상이나 내적 상태에 대한 담화의 정당성(legitimacy)을 거부”<sup>17)</sup>하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거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크립키가 지적하는, KW와 흄(D. Hume)의 유사성도 회의적 해결책과 준실재론의 유사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흄은 외부 대상의 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회의론을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흄은 한편으로 외부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인 믿음들을 전혀 문제시하지 않았다. 크립키에 따르면 흄이 회의주의자인 진정한 이유는, 바로 그가 “믿음들의 원인들에 대한 회의적 설명”과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닌 개념들에 대한 회의적 분석”을 제공했다는 데 있다.<sup>18)</sup> 마찬가지로, 인과의 문제에 관해 흄은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대상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미래의 대상이나 사건을 추론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추론을 다른 기반에서 정당화했을 뿐이다. 즉, 인과적 추론을 지성이 아닌 습관에 의해 정당화한 것이다. 습관은 오류가 아니다. 오히려 습관은 “인간 삶의 위대한 안내자”이며, “습관 없이 우리는 직접적으로 기억과 감각에 주어진 것 너머의 사실들에 관해 무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필수 불가결하다.<sup>19)</sup> 어

17) WRPL, p. 107.

18) WRPL, p. 64.

19) Hume, D.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Indianapolis: Hackett,

졌든 우리는 인과에 관해서 말하고 있으며,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KW 또한, 우리가 의미에 관해서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이다.

나는 회의적 역설에서 회의적 해결책으로 이행하면서 의미에 관한 『논고』의 모델이 다른 모델로 대체되었음을 밝혔다. 나는 데이비스(D. Davies)처럼, 이 모델의 대체가 단순히 언어가 지닐 수 있는 의미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 다시 말해, 기존의 『논고』의 모델도 보존하면서 의미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의미에 관한 『논고』의 모델은 이미 회의적 역설에 의해 철저히 부정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그러나 해당 모델을 부정하는 것과 『논고』의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다르다. 『논고』의 모델은 기각되었지만, 여전히 『논고』의 논의(예컨대, 진리조건을 지닌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의 구분, 사실과 명제의 대응...)는 다른 모델에 의해 주장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점을, 회의적 해결책에 대한 비판들에 답변하면서 더욱 명료히 하려고 한다.

## 5. 회의적 해결책의 내적 정합성

이 절에서는 회의적 해결책이 내적으로 비정합적이라는 보고시안(P. Boghossian)과 라이트(C. Wright)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의미론적 논의 영역에 대한 국지적(local) 비사실주의가 결국 모든 논의 영역에 대한 전면적인(global) 비사실주의로 귀결된다는 것이다.<sup>21)</sup> 왜 이러한 결론이 따라 나오는가?

- (4) 모든 S, p에 대해: 〈S는 p를 의미한다〉는 진리조건을 지니지 않는다.

---

1993, pp. 44-45.

20) Davies, D. "How Sceptical is Kripke's 'Sceptical Solution'?", *Philosophia* 26, 1998, p. 130.

21) Boghossian, P. "The Rule-Following Considerations", *Mind* 98, 1989, pp. 523-525.  
Wright, C. *Rails to Infi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p. 104-105.

그런데, 임의의 문장 S의 진리조건은 부분적으로 그 문장의 의미의 함수이다. 따라서 의미에 관한 비사실주의는 마찬가지로 진리조건에 관한 비사실주의를 함축할 것이다. 즉,

(5) 모든 S, p에 대해, 〈S는 진리조건 p를 지닌다〉는 진리조건을 지니지 않는다.

〈S는 진리조건 p를 지닌다〉는 S가 진리조건 p를 지니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참이다. 그런데 〈S는 진리조건 p를 지닌다〉는 어떤 경우에도 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6) 모든 S에 대해, 〈S〉는 진리조건을 지니지 않는다.

역설의 결론에 대한 라이트의 반론은 소박한 상대주의에 대한 반론과 비슷하다. 즉, 모든 문장들이 진리조건을 지니지 않는다면 회의적 역설의 결론 자체도 진리조건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이트가 보기에 회의적 역설의 결론 자체가 비-사실적인 것일 수는 없다. 그러나 보고시안이 적절히 지적하듯이, KW는 이에 대해, “어떤 문장도 진리 조건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주장 가능한 것일 뿐”이라고 대답하면 된다.<sup>22)</sup>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편, 보고시안은 “축소적 진리 개념”(deflationary concept of truth)과 “강한 진리 개념”(robust concept of truth)을 구별한다. 축소적 진리 개념은 어떤 문장의 진리가 그 문장이 유의미한 평서문이기만 하면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강한 진리 개념은 어떤 문장의 진리가 언어 외적인 사실 또는 실재와의 대응 관계에 의해 확보된다는 입장이다. 보고시안은 KW가 회의적 역설을 시작하기 위해서, 즉 의미귀속문장에 관한 문장 외부적인 사실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서 강한 진리 개념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데, 역설의 결론으로 강한 진리 개념을 부정하게 되므로 자기 모순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보고시안의 비판은 KW가 아닌 회의론자에 대한 비판이다. 강한 진리 개념 자체가 『논고』의 모델이 지닌 대응론적 입장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KW는 회의주의자에 대해 회의적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의미에 대한 관점 자체를 수정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KW가 받아들이는, “진리 잉여 이론”<sup>23)</sup>(redundancy theo-

22) Boghossian, P. op. cit., p. 525.

ry of truth) ['p'는 참이다= $p$  | 'p'는 거짓이다= $\text{not-}p$ ]은 보고시안이 지적인 축소적 진리 개념과 매우 비슷하다. KW가 진리 잉여 이론을 명시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강한 진리 개념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의 진리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를 제공한다.

진정한 문제는 KW가 어떻게 진리 잉여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역설의 결론을 수용할 수 있는가이다. 한 문장을 주장하는 것과 그 문장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동일하다면, KW의 회의적 해결책에서 공동체에 의해 주장 가능성을 부여 받은 문장들은 모두 진리조건을 지닌 문장들이다. 그러나 이는 KW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회의적 결론, 즉,

(7) 어떤 문장도 진리조건을 지니지 않는다. [전면적 비사실주의]

(7\*) 아무도,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회의적 결론]

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KW에 관한 사실주의적 해석들에 따르면, KW는 (7)과 (7\*)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따라서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는 이 극단적인 결론을 “정신 나간” 또는 “참을 수 없는” 결론이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그가 회의적 역설의 결론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정확히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는 의미귀속문장들이 고전적 실재론(Classical Realist)이 말하는 강한 의미의 진리조건을 지닌다는 것을, 그리고 강한 의미의 의미론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귀속문장들이 강한 의미의 진리조건을 지닌다는 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7\*)과 같이 극단적인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회의주의자가 엄두에 두지 않았던 종류의 의미론적 사실, 의미귀속문장의 진리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KW는, 적어도 고전적 실재론과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론적 사실과 진리조건이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KW가 받아들이는 것은 (7)이나 (7\*)이 아니라, 기껏해야 다음과 같은 것이다.

(8) 만약 우리가 강한 진리 개념(또는, 『논고』의 모델)을 채택한다면, 어떤 문장도 진리조건을 지니지 않는다.

---

23) *WRPL*, p. 86. *PI*, §136.

밀러에 따르면, 윌슨(G. Wilson)은 KW에 대한 사실주의적 해석을 통해 “우리가 의미를 구성하는 사실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권리를 지닌다거나, 어떤 의미귀속 문장을 진정한 사실에 관한 참인 기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진리-적합성과 사실에 관한 최소주의적 또는 축소적 설명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는 불분명하다.”<sup>24)</sup> 데이비스는 명시적으로 축소적 설명과 사실주의적 해석을 결합하지만,<sup>25)</sup> 윌슨의 경우, “새로운 회의적 해결책은 의미귀속의 내용을, 유관한 언어놀이 내에서 그것이 지닌 역할과 유용성에 의해 설명하려고 하며, 의미에 관한 규범적 조건문(normative conditional)은… 의미에 관한 우리의 표준적 기준의 사용이 발생시키고, 강화하는 요구들을 통해 설명된다”<sup>26)</sup>는 구절을 통해 의미귀속문장의 “내용”에 관한, 비-축소적인 설명을 복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주의적 해석의 핵심이 의미론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면, 그리고 이 의미론적 사실이 회의적 해결책에 도입된 공동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러한 주장은 KW 자신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KW가 의미론적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KW의 회의적 해결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회의적 해결책을 준-실재론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의미론적 논의를, 『논고』의 모델과는 다른 기반에서 정당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이 작업의 결과로, 만약 우리가 ‘X는 M을 의미한다’, 또는 ‘X는 참이다’라고 변함없이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의 문장들이 언어 외적인 사실의 영역과 대응한다거나, 이 사실들이 위의 문장들을 정초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장들이 공동체의 구체적인 언어놀이 안에서 유의미한 발화로 간주될 수 있는 여건이 달성되었고, 그 문장이 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유용성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모델에서 의미론적 사실은 아무런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반면, 진리에 대한 축소적 설명을 채택하는 사실주의적 해석은 의미론적 사실의 존재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설명에 따르면, 한 문장은 구문론적으로 올바른, 유의미한 문장이기만 하면 진리조건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KW는 이 축소적 의미, 즉 최소한의 의미를 넘어서지 않는 한, 의미귀속문장의 진리조건을 인정할

24) Miller, A. op. cit., p. 194.

25) Davies, D. op. cit., p. 131.

26) Wilson, G. “Kripke on Wittgenstein on Normativity”, in Miller, A. & Wright, C. (ed.) op. cit., p. 258.

수 있다. 그러나 한 문장의 참이 외부적 사실과의 대응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를 '사실주의적'이라고 불려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KW는 회의적 해결책을 통해 우리가 변함없이 진리와 사실에 관해 말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축소적 설명-사실주의적 해석>의 조합을 대체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몇 가지 유보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KW가 한 문장의 진리조건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것은 특정 공동체 내의 화자가 '~는 참'이라는 술어를 적용할 수 있는 일정한 여건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둘째, 어떠한 사실도 한 문장의 진리조건을 인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도입되지 않는다. 나는 앞서 『논고』적 모델이 기각되어도 『논고』적 논의는 기각될 필요가 없음을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논고』적 논의가 <축소적 설명-사실주의적 해석>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러에 따르면, <축소적 설명-사실주의적 해석>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주장 가능성 조건이 바로 "[용어] T에 관한 [화자] X의 사용을 옳음과 그름이라는 범주들로 분류하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진리-적합성에 대한 최소주의적 이해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회의주의자의 부정적 논변에 의해 의문시되었던 옳음의 개념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sup>27)</sup> 즉, 이 해석은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어지는 절에서 회의주의자의 논변에 의해 의문시되는 옳음 개념과 회의적 해결책에서 제시되는 옳음 개념이 같은 것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밀러의 비판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 6. 회의적 해결책과 공동체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어공동체는 회의적 해결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나는 이 절에서 맥킨이 제시한 두 가지 문제, 즉 ① "그가 규칙 R을 준수한다"는 문장의 주장 가능성 조건을 얻기 위해 공동체에 호소할 필요가 있는가?", ② "공동체의 도입이 실제로 옳은 결과를 주는가?"<sup>28)</sup> 라는 문제에 대답하고자 한다.

---

27) Miller, op. cit., p. 199.



우선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자. 공동체가 개인의 발화에 대해 주장 가능성을 준다고 할 때 그 주장가능성이 진리 조건과 같은 ‘사실’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우리가 의미귀속문장의 참을 결정할 사실로서 ‘공동체의 대답’이라는 후보자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회의적 해결책이 아니라,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KW가 지적하는 대로, 이러한 이론은, “성향 이론의 사회적, 또는 공동체-규모의 변형”<sup>29)</sup>이 될 것이며, 다시금 회의적 논변에 노출될 것이다. 공동체 역시 유한한 역사를 지니기 때문에 성향주의에 대해 제기되었던 무한성 반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공동체가 내용을 대답과 공동체가 내놓아야 할 대답 사이의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범성 반론에도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W가 권고하는 것은, 의미귀속이 실제로 일어나는 여건들과 의미귀속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를 통한 주장가능성 조건에 대한 KW의 논의는 순전히 기술적(descriptive)인 것이지, 의미가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 생겨나는지를 이론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논의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주장가능성 조건에 관한 논의의 한계를 이렇게 설정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9) 철수가 지금까지 수행한 거의 모든 덧셈문제들에 대해 수들의 합을 내놓았다면, 철수가 ‘+’로 더하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당화된다.

이것은 우리의 실천에 관한 그럴저러한 정확한 기술(description)이다. 문제는 (9)가 주장가능성을 위해 공동체와의 일치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 (9)에 언급된 것은 오직 ‘철수’라는 개인뿐이기 때문이다. 한편, (9)에 철수가 실제로 더하기를 하는 것과 그가 더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 사이의 구분이 존재한다. (‘합’에 의해) 만약 이 반례가 타당하다면, 따라서 문제 ①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KW의 논변은 실패한 것이 된다.<sup>30)</sup> KW가 가장 상식적으로 채택할만한 답변은 바로 (9)가 암묵적으로 타인들을 지시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즉,

28) McGinn, C. op. cit., p. 185.

29) WRPL, p. 111.

30) Boghossian, P. op. cit., p. 521, Goldfarb, W. op. cit., p. 102, McGinn, C. op. cit., pp. 185-186.

(10) 철수가 지금까지 수행한 거의 모든 덧셈문제들에 대해 수들의 합을 내놓았다면, 철수가 '+'로 더하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주장은 [타인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보고시안에 따르면 (10)은 단지 말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 철수와 다른 또 다른 개인, 영희가 철수의 주장 가능성 조건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영희는 정상적으로 덧셈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여야 한다. 영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11) 내가 신뢰할만한 덧셈 계산자였다는 조건에서, 철수가 지금까지 수행한 거의 모든 덧셈 문제들에 대해 내놓은 답이 나의 대답과 일치한다면, 철수가 '+'로 더하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주장은 정당화된다.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조항의 추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신뢰할만한 덧셈 계산자는 다름 아닌, 모든 덧셈 문제에 대해 수들의 합을 내놓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은 (9)의 변형에 불과하다. 보고시안은 이로부터 “공동체적 조건의 수용가능성이 고립적 조건의 수용가능성에 기생적(parasitic)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한다.<sup>31)</sup>

KW는 여기서 일종의 딜레마<sup>32)</sup>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그가 규칙 준수에 대한 구성적(constitutive) 설명을 주고자 한다면, 다시금 회의적 논변에 노출된다. KW는 이 점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 설명을 주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논의를 기술적 차원에 한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의 관행에 대한 기술이 공동체를 지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회의적 해결책에서 공동체가 고립된 개인의 규칙 준수를 막을 근거가 없다. 나는 KW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 보고시안의 결론을 비판할 것이다.

첫째, 나는 공동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올바른 규칙 준수의 조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얼핏 보기에 성향주의가 논박되는 이유와 고립 언어가 논박되는 이유는 비슷해 보인다. 즉, 두 가지 모두 실제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과 규칙을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구분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동체가 제시하는 올바른의 조건

---

31) Ibid., p. 522.

32) S. Blackburn, "The Individual Strikes Back", *Synthese* 58, 1984, p. 292.

(correctness condition)[C1]은 회의주의자가 성향주의를 논박하면서 요구했던 올바른 조건[C2]과 명백히 다르다.<sup>33)</sup> KW의 논변이 회의적 논변에 다시 노출되는 것은 오직 그가 회의적 해결책에서 C2를 제시하고자 할 경우일 뿐이다. C2는 의미귀속문장의 참 거짓을 결정해줄 수 있는 일종의 의미론적 사실에 의해 성취된다. 고립된 개인은 공동체에 호소할 필요 없이 C2를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규칙 준수를 할 수 있다. 고립된 개인의 언어 사용은 C2와 결합하면 의미 규칙에 대한 올바른 준수가 된다. 공동체를 통한 정당화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C1은 C2를 제공하는 의미론적 사실이 없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공되는 느슨한 조건이다. 즉, 이것은 특정 공동체가 존재함으로써만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이다. 또한, 이것은 선행적인 논증에 의해 얻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 내부의 역사와 경험 속에서 주어지는 경험적 조건이다. 이 조건은 오직 그 공동체 안의 구성원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약한 의미에서라면 나는 공동체가 개인들에게 실제로 규칙 준수의 옳음과 그름을 판정할 기준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C2가 제공하는 올바른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의 올바른이라면, C1이 제공하는 올바른은 일종의 준-올바름(quasi-correctness)일 것이다. 따라서 KW는, 우리의 관행 속에서 공동체가 실제로 옳음 조건을 주고 있다고 대답함으로써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대답은 KW가 말한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지 않는다.

다음으로, 보고시안의 결론을 살펴보자. 그는 공동체 차원의 규칙 준수가 마치 독자적인 규칙 준수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즉, KW가 말하는 “일치”는 곧 “합의”인 것처럼 말한다. (11)의 경우로 돌아가, 영화와 철수가 서로 자신이 신뢰할만한 덧셈 계산자임을 믿는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 모두 자신 외의 다른 누구에게 호소하지 않고, 이 믿음을 형성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두 사람의 대답이 일치한다면 두 사람의 주장은 모두 정당화된다. 그런데 영화는 ‘ $68+57=?$ ’에 ‘125’라고 대답하고, 철수는 ‘5’라고 대답한다고 하자. 아마 보고시안은, 두 사람의 대답 모두가 주장가능하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가능성은 누가 판단할 것인가? 이 원초적 상황의 경우, 개인들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의미에 관한 올바른 규칙 준수도 없다.

그러나 KW에 따르면, 일치는 합의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주장은 명백하다. “우

33) 이 해석에 따르면 앞 절에서 제기된 밀러의 비판은 C1과 C2를 혼동한 결과이다. 따라서 <축소적 설명-사실주의적 해석>은 아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덧셈의 개념을 파악하기 때문에 '68+57'에 우리 지금 하는 대로 대답한다거나, 우리가 덧셈에 관한 공통된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덧셈 문제에 관해 공통된 대답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없다.”<sup>34)</sup> 영희와 철수의 상상적 불일치는 단순히,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공동체 차원의 통일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통일성이, 영희와 철수에게 공통된 의미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의미 귀속의 배경에는 언제나 공동체 차원의 일치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KW가 언급하는 “일치”란 무엇인가?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하듯이, 우리는 “언어에서 일치한다. 그것은 의견에서의 일치가 아니라 삶의 형태에서의 일치이다.”<sup>35)</sup>

KW의 회의적 해결책에서 언어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공동체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개인에 선행하면서 개인의 규칙 준수를 가능하게 한다. 개인의 규칙 준수는 언제나 특정한 공동체적 맥락 안에서만 가능하다. 둘째, 언어공동체는 개인에 대해 일방적인 권위를 지닌다. 이는 마치 학생이 수학 시간에 해당 공동체로부터 사칙연산 부호들의 사용법을 일방적으로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보고시안의 논변으로 돌아가자. 의미에 관한 규칙 준수는 철수와 영희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9)와 (10)에 나타난 ‘합’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11)에 나타난 ‘신뢰할만한 덧셈 계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정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그 개인이 속한 삶의 형태를 담지하고 있는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언제나 개인에 앞서 존재하면서 개인이 대답하는 바를 판정한다. 그렇다면, (9)와 (11)은 암묵적으로 전체 공동체를 지시한다. 따라서 보고시안의 결론은 다시 뒤집힌다.

다만 이 경우, 어떻게 공동체가 판정하는가, 결국 공동체의 개개인이 그 개인의 대답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개개인의 판단과 별도로 독립된 공동체의 판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는 학생이 해당 공동체로부터 사칙연산 부호들의 사용법을 배운다고 했지만, 실제로 학생은 특정한 선생에게 배운다. 이 경우, 선생이 일정한 의미에서 전체 공동체를 체화 또는 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 KW의 논의에서 ‘공동체’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

34) *WRPL*, p. 97.

35) *PI*, §241.

문제는 회의적 해결책에 대한 결정적 논박이라기보다는, 회의적 해결책이 지닌 이론적 공백에 대한 지적이다. 나는 KW가 추상적인 실체로서의 공동체를 요청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답하고자 한다면, 어떤 개인(들)의 판단을 전체 공동체의 판단으로 간주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상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맥킨의 문제 ②로 넘어가자. 개인이 올바른 규칙 준수를 행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공동체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공동체가 개인과 마찬가지로 실수할 수 있다면, 개인은 올바른 규칙 준수에 실패할 수 있다. 한 공동체가 의미에 관한 규칙 준수에서 [체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가?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발화의 주장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기준(criteria)으로 작용한다. 기준이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동체 자체를 넘어서는 기준이 존재하는가? 예컨대, 축구 경기에서 한 개인이 실수를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고, 그는 카드를 받거나 퇴장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축구 공동체 전체(선수, 감독, 심판, 관객…)가 실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해당 공동체 밖에 있는 누군가는 공동체가 실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의 말이 주장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sup>36)</sup> 그는 이미 공동체의 기준 밖에 있기 때문이다. 주어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올바른 규칙 준수의 조건이라고 할 때, 나는 의미에 관한 올바른 규칙 준수가 '전체 공동체와의 일치'라는 말을 통해 서술될 수 있다고 본다. 공동체가 존재하는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올바른 규칙 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공동체 차원에서는 올바른 규칙 준수와 그렇지 않은 규칙 준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즉, '공동체가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공동체가 실제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나 나는 이 비판이 두 가지 이유에서 KW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공동체가 적절한 의미에서 규칙 준수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전체 공동체는 개인의 규칙 준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규칙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가 스스로 규칙 준수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어색하다. 둘째, KW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

36) WRPL, p. 146.

회의주의자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차원에서 의미귀속문장을 참이게 할 수 있는 의미론적 사실이 없다는 역설을 제시했고, KW는 이에 대해 의미론적 사실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특정 개인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올바른(C1의 의미에서) 규칙 준수를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역설과 해결책이 모두 개인을 둘러싸고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규칙 준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공동체차원에서 올바른 규칙 준수가 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KW는 아마 신(神)에게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작업이다.

## 7. 독립적 규칙 준수의 불가능성

고립적 규칙적 준수의 불가능성은 회의적 해결책의 결론이다. 그러나 고립(적으로 고려)된 개인이 올바른 규칙 준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상하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담배를 끊겠다고 스스로에게 규칙을 부여한 후,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나의 경향성을 극복한 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올바르게 규칙 준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고립된 개인이 규칙 준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올바른 규칙 준수의 기준을 제공하는 자와,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 KW가 지적하듯이, 이 경우에는 규칙을 준수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규칙을 실제로 준수하는 것 사이의 구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을 시점에 따라 나누어보자. 나는 특정한 시점  $t_1$ 에 담배를 끊겠다는 규칙과 그 규칙에 대한 올바른 준수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점  $t_2$ 에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이때 올바른 규칙 준수가 일어난다. 이후의 시점  $t_3$ 에 나는 그저 욕구에 따라 담배를 피운다. 이때 나는 규칙 준수를 하지 못한다. 내 인격의 동일성을 가정하지 않을 때,  $t_1$ 의 나와  $t_2$ 의 나의 관계는 마치 서로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의 관계와 유비 관계에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일치가 회의적 결론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개인을 서로 다른 시점으로 분할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일치를 통해 회의적 결론을 극복하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sup>37)</sup>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KW의 올바른 규칙의 준수가 어떤 의미의 규칙 준수인지 알아야 한다. 위의 예에서 가정되고 있는 것은, 개인을 여러 시점으로 나눠 특정 시점에 내가 의미한 것과 이후의 시점에 내가 의미한 것의 일치가 의미에 관한 올바른 규칙 준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맥긴은 규칙 준수가 “통시간적(trans-temporal)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근거로 공동체를 통한 KW의 회의적 해결책이 규칙 준수의 통시간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를 비판한다.<sup>38)</sup>

그러나 나는 당장 내가 올바르게 의미에 대한 규칙을 준수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다른 시점과 현재의 시점을 비교해볼 필요가 없다. 서로 다른 시점 t1과 t2에 의미한 것의 동일성을 올바른 규칙 준수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이는 올바른 규칙 준수에 대한, 지극히 느슨한 조건이 된다. 회의적 역설에 의해 기각된 성향주의 역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t1에 내가 용어 T와 성향 D를 결합시키고, t2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용어 T와 D를 결합시킨다면, 성향주의를 통해서도 올바른 규칙 준수가 가능하다.

맥긴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내가 그 말을 사용하는 그 시점에 즉각적으로 규칙을 준수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규칙 준수의 본질적 특성이다. 그것은 보고서 안이 정확히 지적하듯, “어떤 시간에 한 표현으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과 바로 그 시간에 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의 관계이다.”<sup>39)</sup>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가 특정 시점의 개인과 다른 시점의 개인의 관계와 비대칭적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공동체는 다른 시점을 참조하지 않고도, 내가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표현의 사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했는지 아닌지를 말해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독립적인 규칙 준수의 가능성을 옹호하려는 논변은 실패한다.

37)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Blackburn, S. “The Individual Strikes Back”, *Synthese* 58, 1984, p. 291 참조.

38) McGinn, C. op. cit., p. 174, p. 188.

39) Boghossian, P. op. cit., p. 513.

## 8. 결론

나는 이 글에서 KW의 회의적 역설과 회의적 해결책의 윤곽을 제시하고, KW의 회의적 해결책이 내적으로 정합적이라는 점과, 회의적 해결책에 도입된 언어공동체가 고립적 규칙 준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규칙 준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만약 나의 해석이 옳다면 회의적 해결책은 성공적인 논변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KW가 회의적 해결책에서 취하는 입장이, 의미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 『논고』의 모델과 다른 기반에서 정당화한다는 점을, 또한 회의적 해결책의 내적 일관성을 비판하는 논자들이 회의적 해결책의 본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였다. 또한 언어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성공적으로 고립 언어를 배제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 개인들 사이의 의미 귀속이 언제나 암묵적으로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물론 우리가 회의적 역설에 그 자체로 수궁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회의주의자가 제기하는 역설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되었는가의 문제는 이 글의 주제가 아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은, 의미의 본성을 능력(capacity)에서 찾으려는 맥킨의 시도나, 지향성(intention)에서 찾으려는 라이트의 시도, 그리고 역설 자체를 실제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해소하려는 맥도웰(J. McDowell)의 시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성공적이더라도 KW의 회의적 해결책과 이들의 논의 중 어느 것이 의미의 본성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하는지는 따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의 성공 여부와는 별도로, KW의 논변이 회의적 역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논증되었다면, 이 글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Bar-On, D. "On the Possibility of a Solitary Language", *Nous* 26, 1992.  
Boghossian, P. "The Rule-Following Considerations", *Mind* 98, 1989.  
Blackburn, S. *Spreading the Word*, Oxford: Clarendon Press, 1984.  
\_\_\_\_\_. "The Individual Strikes Back", *Synthese* 58, 1984.



- Davies, D. "How Sceptical is Kripke's 'Sceptical Solution'?", *Philosophia* 26, 1998.
- Goldfarb, W. "Kripke on Wittgenstein on Rules", in Miller, A. & Wright, C. (ed.) *Rule-Following and Meaning*,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2.
- Hume, D.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Indianapolis: Hackett, 1993.
- Kripke, S. *Wittgenstein on Rules and Private Langua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McGinn, C. *Wittgenstein on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1984.
- Miller, A. *Philosophy of Language*,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7.
- Wilson, G. "Kripke on Wittgenstein on Normativity", in Miller, A. & Wright, C. (ed.) *Rule-Following and Meaning*,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2.
- Wittgenstein, L.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tr. by G. E. M. Anscombe, Oxford: Basil Blackwell, 1978.
- Wright, C. *Rails to Infin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심사평

우  
수  
상

이 우 램 (인문대학 철학과)

의미, 공동체, 규칙 준수

본 논문은 분명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는 논리적 논변이 돋보이는 글이다. 어려운 철학적 주제를 본격적인 학자들의 논의의 중심에 들어가 그 세부 논쟁을 쫓아가며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가치는 학부 수업 보고서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서론에 나타난 분명한 논문의 과제는, 비록 그 문제의식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 조금 불친절한 면이 있다하더라도, 향후 글을 읽는 이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에 충분하다. 단순히 기존논의를 정리하여 크립키의 회의적 해결책을 구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 그의 논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더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논문의 강점이다.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 인용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철학 학술논문의 기본 형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특별히 분석철학의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에 잘 훈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상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더 친절하게 풀어 설명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건조할 수 있는, 아니 건조할 수밖에 없는 글이지만 이를 독자에게 운기 있는 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김재호(기초교육원 과학과 기술 글쓰기 강의교수)